

# 밀원식물 익모초

익모초 (학명 : *Neonurus sibiricus*, 꿀풀과)

대구대학교 자연자원대학  
교수 류 장 발

**익**모초(益母草)는 이름이 참 좋다. ‘어머니를 도와주는(이롭게 하는) 풀’이니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 지방에 따라 육모초(育母草)라고도 부르나 역시 어머니와 관계가 있고, ‘어머니가 아기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익모초는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원야지와 인가 근처 빈터, 밭둑 등에 흔히 자생한다. 2년생 초본이며 높이 1.5m까지 자라고, 줄기는 둔하게 네모지며 백색털이 있어 백녹색으로 보이며 가지가 갈라진다.

근생엽은 엽병이 길며 3개로 갈라지며 난상 원형이고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거나 결각상이며 꽃이 필 때는 없어진다. 경생엽은 엽병이 길고 역시 3개로 갈라지며 열편이 다시 2-3개로 갈라진다. 각 소열편은 톱니 모양이거나 우상으로 다시 갈라지며 톱니가 있고, 최종열편은 선상 피침형이며 예두이고 회록색이다.

7-9월에 꽃이 피고 색은 연한 홍자색이고, 윗부분의 엽액에 몇 개씩 층층으로 달리고

꽃받침은 5개로 갈라지며 끝이 바늘처럼 뾰족하다. 꽃잎은 아래위 2개로 갈라지며 아래 부분이 다시 3개로 갈라진다. 가운데 것이 가장 크며 붉은 색의 줄이 있고, 수술은 4개인데 2개가 길다.

대구지역에서는 금년에 7월말에 피기 시작하여 9월 중순까지 계속 피고 있다. 가지의 밑부분에서 피기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며 핀다. 이런 형태로 꽃이 피는 것을 무한화서라고 하며 온도와 일장 등 환경만



익모초 개화 전경. 7월말에 피기 시작하여 9월 중순인 지금까지 계속 피고 있다.

맞으면 계속 자라며 꽃도 계속 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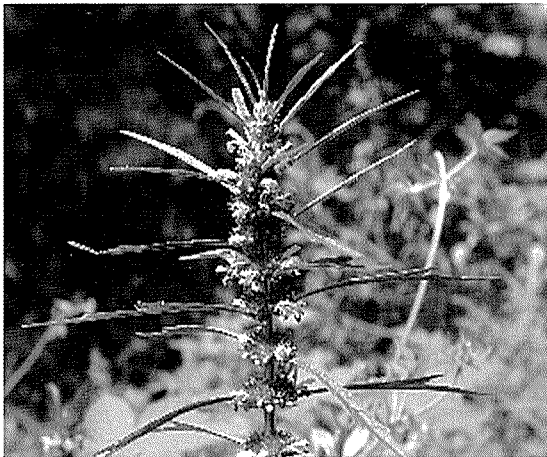
9월에 열매가 성숙되며 5개로 분리되는 분과(分果)이다. 넓은 난형이고 약간 편평하고 3개의 능각이 있으며 털이 없고 꽃받침속에 들어 있다. 종자로 번식시킨다.

수년전 양봉학회에 처음으로 참석하였을 때 90대의 윤은영씨로부터 큰 감동을 받았다. 맨 앞자리에 앉아 발표논문을 열심히 듣고 질문을 하며, 본인도 '익모초의 번식방법' 논문을 발표하셨다. 학회에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발표되는 논문이 그 업에 무엇인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석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농업 전반이 어려운데, 각 학회에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은 참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소위 '최첨단 세계적인 논문은 많이 발표되지만, 실제로 참고 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 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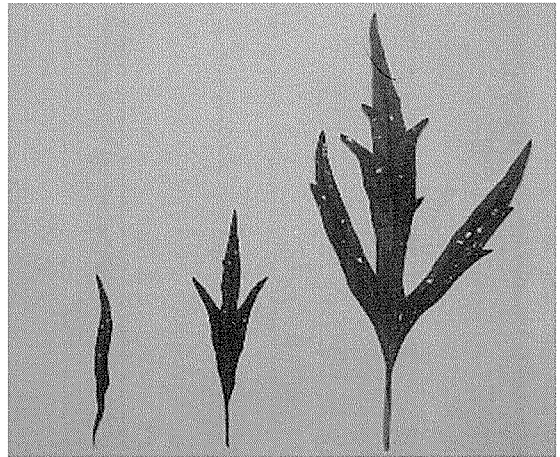
2년전쯤 학회가 끝날 때쯤 윤은영씨가 말없이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익모초씨가 한 되쯤 들어 있었다. 그것을 학교 이곳저곳에 뿌렸더니 이번 가을에 익모초 꽃이 많이 피었다. 금년 봄 학회에서는 윤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혹시 편찮으신지?

익모초는 여러 용도의 약으로 사용한다. 특히 뱀의 독(蛇毒)에 쓰인다니 눈이 번쩍 뜨인다. 내 고향 마을에 뱀에 물린 사람을 백발백중 치료해주는 노인이 계셨다. 뱀에 물려 지체에 얽혀 온 사람이 열흘쯤 후에는 걸어서 나갔다. 환자중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으니 '백발백중' 치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치료법이 침과 고약이라는 것이다. 침으로는 아마 독을 빼 내고 고약으로 치료하였을 것이다. 고약은 주변의 약초를 채집하여 조제하였을 것인데 비법이다. 그 노인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전수받았는데, 그 아들도 이제 연세가 많다. 혹시 그 분이 비법을 전해주시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약초중에 익모초도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익모초는 이름이 좋으므로, 대량으로 심어 '익모초 꿀'을 생산한다면 홍보하기에는 매우 쉬울 것이다. 어머니에 좋으면 아기에게 좋고, 자녀에게 좋다는데 돈을 아낄 부모가 있겠는가? 이번 가을에는 익모초 씨를 받아 주변에 뿌려보자.



익모초 개화 근경



익모초의 잎.

처음에는 선형(왼쪽)이나 자라면서 삼지창(오른쪽)처럼 변한다. 다 자란 잎은 길이가 10cm가 넘는다.